

아동의 개인적 · 환경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are
Bullies and/or Victims

서미정(Mi Jeong Seo)¹⁾

김경연(Kyong Yeon Kim)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peer bullying by sex and by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normal children. Findings were that the proportion of the total sample involved in peer bullying was 47.88%. Of the bullying children, 38.15% were bully-victims, followed by victims and bullies. The bullying of both boys and girls was influenced by exposure to violence, delinquent friends, and peer support. Bullies ha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and exposure to violence than normal children and higher levels of peer support than victims. Victims had higher levels of delinquent friends and exposure to violence than normal children. Bully-victims showe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immaturity, delinquent friends, exposure to violence and lower levels of peer support than normal children.

Key Words : 가해아(bullies), 피해아(victims), 가해 · 피해아(bully-victims), 개인적 변인(personal variables), 환경적 변인(environmental variables).

I. 서론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등 긍정적 경험을 하지만 아동 중기부터는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의 한 유형인 또래괴롭힘 현상이 급증한다고 보고된다(Hoover, Oliver, & Hazler, 1992). 또래괴롭힘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동이 한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을 의미한다(Olweus, 1997). 또래괴

¹⁾ 부산대학교 아동 · 주거학과 박사과정

²⁾ 부산대학교 아동 · 주거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Jeong Se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Changjeon-dong, K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bella2001@pusan.ac.kr

롭힘에 관여되는 아동은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로 구분된다. 가해아는 특정한 아동에게 부정적 행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이고, 피해아는 또래들로부터 부정적 행동을 당하는 아동이며, 가해·피해아는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래를 괴롭히는 데 참여하기도 하는 아동이다.

가해아의 경우 괴롭히는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강화되어 비행이나 범죄적 폭력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박미연, 2000; Schwartz, Dodge, & Coie, 1993), 피해아는 학교를 싫어하고(Ladd & Burgess, 2001), 낮은 자아존중감(Rigby & Slee, 1993), 우울, 불안, 외로움(임지영, 1998; Olweus, 1993; Perry, Williard, & Perry, 1990) 등 적응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가해·피해아는 사회적 수용도가 낮고(Austin & Joseph, 1996) 공격성, 우울, 불안, 위축 및 학교 부적응 수준이 가해나 피해만을 경험하는 아동보다 더욱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정지민, 1998; 한종철, 김인경, 2000; 황성숙, 1999; Olweus, 1997). 또래괴롭힘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Kupersmidt, Coie, & Dodge, 1990), 아동후기 또는 청소년기의 가해경험은 성인기의 범법행동이나 폭력범죄와 관련되고 청소년기의 피해경험은 성인기의 고독, 우울, 사회적 위축등과 관련을 보이는(Olweus, 1993) 등 또래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성을 갖는다.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되는 변인들은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변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공격성은 가해아의 대표적인 행동특성 중 하나로 보고된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박미연, 2000; 이상균, 1999; Bernstein & Watson, 1997). 공격성향이 높은 아동은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고, 그러한 방식을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이상균, 1999), 피해아에게도 도움을 제공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해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둘 수 있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미성숙이다. 선행연구들은 피해아 대다수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보고한다(Egan & Perry, 1998). 즉 이들은 잘 울고 어른에게 의지하며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Schwartz 등, 1993)등 타인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게끔 행동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경남, 2001; 한종철, 김인경, 2000; Olweus, 1993). 가해·피해아는 미성숙과 같은 내재화 행동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 수준이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보고됨(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한종철, 김인경, 2000; Perry, Kusel, & Perry, 1988)에 따라 가해·피해아는 가해아와 피해아의 취약한 특성을 함께 가지는 부적응한 개인들로 여겨진다. 또한 가해·피해아는 일반아와 피해아에 비해 많은 비행친구를 사귀고 있으며(김희화, 2001) 가족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취약하다는 결과(한종철, 김인경, 2000)는 또래괴롭힘의 유형별 접근에서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간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학업부적응은 또래간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학업에 대한 관심 및 동기의 부족은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 1999; 조샘이, 2001; 한영주,

1999; 황성숙, 1999; Bosworth, Espelage, & Simon, 1999; Kris, Dorothy, & Thomas, 1999; Natvig, Albrektsen, & Qvarnstrom, 2001). 학업 부적응은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또래괴롭힘 관여아동이라는 점에서 가해아 및 가해·피해아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심희옥, 2001; 이해경, 김혜원, 2001; 한영주, 1999)은 자기주장, 자기조절, 갈등대처양식이 또래괴롭힘의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표출하는 능력이 결핍되면 가해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영주, 1999). 자기조절은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이라는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정서조절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Holgren, Maszk, & Losoya, 1997). 이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정서조절능력은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인 또래괴롭힘과 더욱 관련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은 이상에서 검토된 개인적 변인외에 부모 및 또래 환경에 있어서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환경적 변인 중 우선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모의 애정은 피해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전재천, 2000) 피해아 및 가해아 모두 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김석진, 1999; 안재진, 이경남, 2002; 최은숙, 1999; Perry 등, 1988). 즉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불안수준이 높아 지는데, 이러한 아동의 취약성은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게 하여 피해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Troy & Sroufe,

1987). 또한 모의 거부·제재로 인한 좌절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석진, 1999). 이와 같이 모의 애정 및 거부·제재는 또래괴롭힘에 상반된 관련성을 가지는데, 특히 모의 거부·제재는 가해 및 피해 모두와 관련되므로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래괴롭힘 자체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부모의 양육보다 또래 환경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래괴롭힘과 또래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춘재, 광금주, 2000; 이해경, 김혜원, 2001; 정정호, 2000; Bukowski, Sippola, & Boivin, 1995; Hodges, Malone, & Perry, 1997)은 피해아 대부분이 지지적인 친구를 갖고 있지 않은 반면 가해아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소수의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해아의 친구지지 정도는 일반아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김희화, 2001; 이해경, 김혜원, 2000; 조샘이, 2001), 가해아와 일반아는 어떤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나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가해아뿐만아니라 피해아는 일반아에 비해 친구의 비행성향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황성숙, 1999; 조샘이, 2001; Espelage, Bosworth, & Simon, 2000)를 통해 피해아는 친구에게서 비행성향을 학습함으로써 쉽게 가해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비행성향이 가해, 피해 및 가해·피해등 또래괴롭힘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또래 환경 외에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해 온 폭력노출이 거론된다. 아동 중기부터 또래 동조성(Brown, Clasen, & Eicher,

1986)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들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간접 경험은 학습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공격적 행위를 사용하게 되고, 가정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학교에서도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해경, 김혜원, 2000). 폭력노출은 가해 및 피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나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해 및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는 등(박영신, 김의철, 2001; 조샘이, 2001; Natvig 등, 2001) 가해와 피해를 별개의 특성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관여아동이라는 점에서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의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위에서 거론한 기존연구의 제한점외에도 또래괴롭힘의 실태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의 67.5%가 또래괴롭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아, 가해아, 가해·피해아 순으로 보고되고(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1)에서는 비관여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가해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는 피해아보다 가해아의 비율이 많은 반면 여아는 가해아보다 피해아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Karatzias 등, 2002), 남아는 가해·피해아, 일반아, 가해아, 피해아의 순으로 여아는 가해·피해아, 일반아, 피해아, 가해아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이

해경, 김혜원, 2001) 또래괴롭힘 유형별 빈도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유형별 실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는 얻기 힘들다.

한편 또래괴롭힘의 예측변인 및 유형별 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감안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또래괴롭힘 유형별 발생비율(이해경, 김혜원, 2001; Karatzias 등, 2002; Natvig 등, 2001) 및 가해와 피해의 경험 수준(이점숙, 유안진, 1999; 이해경, 김혜원, 2001; 임지영, 1998; Slee, 1994)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또래괴롭힘의 연구는 성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또래괴롭힘 유형별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실태 및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고 또래괴롭힘 유형을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로 세분화하여 집단간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특성을 성별로 비교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의 원인과 중재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괴롭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개인적·환경적 변인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20명이다. 성별 구성에서 남아가 273명(52.50%), 여아가 247명(47.50%)이었고, 학년별 구성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163명(31.35%), 5학년이 183명(35.19%), 6학년이 174명(33.46%)이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황성숙(199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초등학교생에 맞게 수정하여 가해와 피해 각각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내용은 지난 1년간의 학교 생활에서 발생한 또래간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행동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해 문항은 ‘나는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노는데 끼워주지 않았다’이고 피해 문항은 ‘다른 아이들이 노는데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이다. 기존 척도는 가해와 피해의 응답방식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의 중복경험가능성을 감안하여 가해 및 피해 모두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횟수를 동일한 응답범주에 표시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으로 하고 0~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가해와 피해 각각 0~7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부정적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에 따라 또래괴롭힘 유형은 가해의 평균($M=8.61$, $SD=7.53$)과 피해의 평균($M=12.67$, $SD=10.66$)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해경험이 평균치 이상이고 피해경험이 평균치 미만인 아동은 가해아, 가해경험이 평균치 미만이고 피해경험이 평균치 이상인 아동은 피해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평균치 이상인 아동은 가해·피해아, 그리고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평균치 미만인 아동은 일반아로 규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이 가해는 .86, 피해는 .88로 나타났다.

2) 개인적 변인

(1) 공격성

공격성은 아동·청소년 행동평정 척도인 K-CBCL(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 1996) 중 공격성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말썽을 부린다’, ‘물건을 부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2) 미성숙

미성숙은 아동·청소년 행동평정 척도인 K-CBCL(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 1996) 중 사회적 미성숙 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은 ‘너무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등 발달상의 문제와 의존적이고 비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응답범주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성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67로 나타났다.

(3) 학업부적응

학업에 대한 관심 및 동기 저하등 학업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조샘이(200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서의 부적응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4) 정서조절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8)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 중에서 정서조절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예비조사 결과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관계수가 낮은 5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및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상황에 맞게 정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로 나타났다.

3) 환경적 변인

(1) 모의 거부·제재

모의 거부·제재를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거부·제재 영역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를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태도로서 아동이 지각한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 친구지지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친구 지지 하위영역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로 나타났다.

(3) 친구의 비행성향

친구의 비행성향을 측정하고자 이상균(1999)의 척도 문항 중 예비조사에서 전체 문항과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문항을 제외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가출한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해 총 친구수에 대한 비행친구의 비율을 '없다, 25%, 50%, 75% 이상'으로 하고 0~3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1로 나타났다.

(4) 폭력노출

폭력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폭력노출 척도는 가정내폭력(4문항), 교사폭력(2문항), 또래폭력(2문항), 대중매체폭력(4문항)을 포함하였다(문항의 예 - 가정폭력 : '나는 가정에서 손으로 맞거나 발로 차인 적이 있다', 교사폭력 :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적이 있다’, 또래폭력 : ‘나는 또래간 집단싸움을 본 적이 있다’, 대중매체폭력 : ‘나는 TV나 게임기에서 폭력장면을 본 적이 있다’). 각 응답범주는 ‘전혀없다, 일년에 1~2회, 6개월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하고 0~4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교사, 또래 및 대중매체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 척도 구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01명이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대상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5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4~6학년 각 학년별로 한 학급씩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최초 선정된 대상자는 545명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25명을 제외하고 52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8.2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유형별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서 연구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 모형을 구하기 위해 단계적 변인선택방법(stepwise)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평균차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GLM)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의 또래괴롭힘 실태

아동의 또래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또래괴롭힘 유형별 분포를 성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반아가 전체 아동의 52.12%(271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가해·피해아(18.27%), 피해아(15.19%), 가해아(14.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는 일반아(42.49%), 가해아(20.88%), 가해·피해아(19.41%), 피해아(17.22%)의 순이며, 여아의 경우는 일반아(62.75%), 가해·피해아(17.00%), 피해아(12.96%), 가해아(7.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chi^2=28.79$, $Df=3$,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가해, 피해 및 가해·피해 등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와 가해·피해아의 비율은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가해아의 비율은 남아가 여아의 약 3배의 분포를 보였다.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 (N=520)

	남아(%)	여아(%)	전체(%)	χ^2
가해아	57(20.88)	18(7.29)	75(14.42)	
피해아	47(17.22)	32(12.96)	79(15.19)	28.79***
가해·피해아	53(19.41)	42(17.00)	95(18.27)	(Df=3)
일반아	116(42.49)	155(62.75)	271(52.12)	
총 합	273(100)	247(100)	520(100)	

***p<.001.

2.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성별로 산출한 것은 <표 2>와 같다. 남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01~.46의 범위에 있다. 남아의 가해경험은 공격성,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아의 피해경험은 공격성, 미성숙, 모의 거부·제재,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며, 친구지지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는 종속변인인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08~.47의 범위에 있다. 여아의 가해경험은 공격성, 미성숙, 학업부적응, 모의 거부·제재,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서조절과 친구지지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아의 피해경험은 공격성, 미성숙, 학업부적응, 모의 거부·제재,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친구지지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독립변인들간 상관계수는 .01에서 .47까지 분포하고 있어 회귀분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변인인 공격성, 미성숙, 학업부적응, 정서조절과 환경적 변인인 모의 거부·제재, 친구지지,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속변인(또래괴롭힘 관여 : 일반)에 대해 로지스틱 회

〈표 2〉 연구변인들간의 적률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 공격성	-	.43***	.13	-.21**	.23***	-.14	.23**	.47***	.47***	.34***
2. 미성숙	.08	-	.24***	-.32***	.09	-.37***	.06	.25***	.26***	.33***
3. 학업부적응	.23**	.21**	-	-.24***	.14	-.42***	.12	.19**	.18*	.21**
4. 정서조절	-.34***	-.04	-.20**	-	-.02	.31***	-.11	-.16*	-.25***	-.08
5. 모의 거부·제재	.34***	.09	.25***	-.15*	-	-.23**	.25***	.25***	.16*	.25***
6. 친구지지	-.10	-.34***	-.21**	.32***	-.19***	-	-.04	-.15*	-.28***	-.44***
7. 친구의 비행성향	.19**	.01	.02	-.20**	.17***	-.16*	-	.23**	.24***	.33***
8. 폭력노출	.41***	.05	.27***	-.22**	.24***	-.23***	.39***	-	.32***	.35***
9. 가해경험	.30***	-.02	.13	-.10	.05	-.10	.21**	.46***	-	.56***
10. 피해경험	.17*	.16*	.08	-.01	.14*	-.36***	.40***	.36***	.33***	-

주. 남아(N)=185, 여아(N)=183. 대각선 아래수치는 남아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위의 수치는 여아의 상관계수임.
*p<.05 **p<.01 ***p<.001.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를 성별로 제시한 것은 <표 3>과 <표 4>와 같다. 남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폭력노출($\beta=.43,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의 비행성향($\beta=.29, p<.05$), 친구지지($\beta=-.21, p<.001$) 순이었다(표 3). 즉, 남아는 폭력노출 수준 및 친구의 비행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가해, 피해 및 가해·피해등 또래괴롭힘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chi^2=45.08, Df=3$) 유

<표 3> 남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표(N=194)

변 인	B ^a	Exp(B) ^b	β^c	Model χ^2 d	Concordant ^e
폭력노출	.09	1.09	.43***		
친구의 비행성향	.30	1.35	.29*	45.08*** (Df=3)	75.5%
친구지지	-.06	0.94	-.21***		

주. 결측치는 사례수에서 제외되었음. 관여아(n)=108, 일반아(n)=86.

^a로지스틱 회귀계수 ^b승산비율 ^c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

^d-2 Log Likelihood 우도비 ^e관찰치의 분류정확율

*p<.05 ***p<.001

1) 종속변인이 명목변인이고, 독립변인들 중 하나 이상이 연속적인 수준에서 측정될 때 적합한 방법이다.

* 로지스틱 회귀모형 I. $\ln(P/1-P)=\alpha+\beta_1X_1+\beta_kX_k$

$$II. P/1-P=\text{Exp}(\alpha) \cdot \text{Exp}(\beta_1X_1) \cdot \dots \cdot \text{Exp}(\beta_kX_k)$$

(α : 절편, $\beta_1 \sim \beta_k$: 부분회귀계수, $X_1 \sim X_k$: 독립 변인, P: 또래괴롭힘 관여 확률)

이 모형의 회귀계수는 사상발생에 대한 Log odds (승산치의 자연대수)의 선형적인 증감을 나타내며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처럼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상발생의 Log odds를 증가시킨 변인은 사상이 발생할 확률/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Morgan & Teachman, 1988).

의미하며 본 모형으로 관찰치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concordant)은 75.5%로 나타났다.

여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지지($\beta=-.45,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의 비행성향($\beta=.27, p<.01$), 공격성($\beta=.25, p<.01$), 폭력노출($\beta=.22, p<.05$) 순이었다(표 4). 즉, 여아는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 및 폭력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 피해 및 가해·피해등 또래괴롭힘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chi^2=71.25, Df=4$) 유의미하며 본 모형으로 관찰치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concordant)은 80.5%로 나타났다.

<표 4> 여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표(N=192)

변 인	B	Exp(B)	β	Model χ^2	Concordant
친구지지	-.12	0.89	-.45***		
친구의 비행성향	.30	1.35	.27**	71.25*** (Df=4)	80.5%
공격성	.07	1.07	.25**		
폭력노출	.07	1.07	.22*		

주. 결측치는 사례수에서 제외되었음. 관여아(n)=68, 일반아(n)=124.

*p<.05 **p<.01 ***p<.001

3. 또래괴롭힘 유형별 관련변인의 차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또래괴롭힘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평균차 검증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래괴롭힘 유형에 따라 공격성($F(3, 495)=20.96, P<.001$), 미성숙($F(3, 500)=8.19, P<.001$), 학업부적응($F(3, 514)=2.81, P<.05$), 정서조절

<표 5> 또래괴롭힘 유형별 관련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가해아 M(SD)	피해아 M(SD)	가해·피해아 M(SD)	일반아 M(SD)	F
개인적 변인						
공격성	499	21.45(6.34) b	19.90(6.33) bc	24.42(7.01) a	18.45(6.21) c	20.96***
미성숙	504	7.52(2.99) ab	7.55(3.10) ab	8.74(3.44) a	6.89(3.01) b	8.19***
학업부적응	518	6.65(2.88) a	7.11(3.23) a	7.34(3.03) a	6.39(3.03) a	2.81*
정서조절	499	33.76(5.63) b	35.12(5.80) ab	35.04(6.83) ab	36.35(6.50) a	3.59**
환경적 변인						
모의 거부·제재	490	26.00(8.32) a	27.00(9.65) a	26.58(7.42) a	24.29(7.83) a	3.30*
친구지지	484	24.71(6.55) ab	21.76(7.57) c	22.74(5.57) bc	27.01(6.18) a	18.41***
친구의 비행성향	514	1.62(1.61) ab	2.08(2.87) a	2.07(1.78) a	0.98(1.36) b	13.47***
폭력노출	503	15.89(8.09) a	13.61(8.99) a	16.57(9.35) a	9.13(6.36) b	30.40***

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문자(예 : a, ab)를 갖는 집단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각 변인의 결측치가 다르므로 사례수는 동일하지 않음.

*p<.05 **p<.01 ***p<.001

(F(3, 495)=3.59, P<.01), 모의 거부·제재(F(3, 486)=3.30, P<.05), 친구지지(F(3, 480)=18.41, P<.001), 친구의 비행성향(F(3, 510)=13.47, P<.001)과 폭력노출(F(3, 499)=30.40, P<.001)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 의해 살펴보면, 일반아가 가해·피해아보다 공격성, 미성숙,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 수준은 낮게 나타났고 친구지지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 수준에서는 일반아와 가해·피해아는 차이가 없었다.

일반아와 가해아를 비교해 본 결과, 미성숙, 친구지지, 친구의 비행성향 수준에서는 일반아와 가해아는 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조절 수준은 가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낮았으며 공격성, 폭력노출 수준에서는 가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아와 피해아를 비교해 본 결과, 공격성, 미성숙, 정서조절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친구지지의 경우 일반아가 피해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 수준에서는 피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피해아와 일반아의 개인적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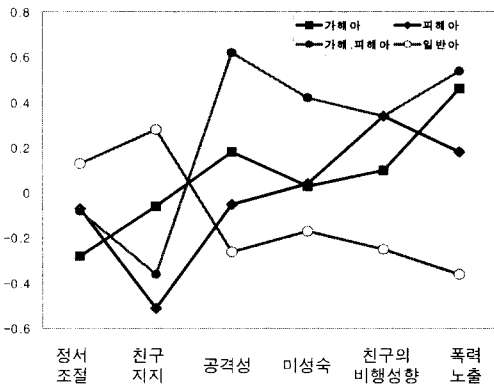
성은 유사하지만 환경적 변인의 특성에서는 피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취약함을 의미한다.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는 미성숙, 정서조절,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 차이가 없으나 가해·피해아는 가해아와 피해아보다 공격성이 높고 피해아는 가해아에 비해 친구지지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즉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는 유사한 특성도 있지만 차별적인 특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에 의해 학업부적응과 모의 거부·제재 수준은 또래괴롭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의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준화 점수²⁾로 전환하여 <표 5>를 도식화하

2)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변인들의 관측치를 비교할 때 측정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각 변인의 측정단위를 통일시켜 관측치의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z-score)를 사용한다. 표준화 점수는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해준다.

였다(그림 1). 일반아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서조절, 친구지지 등 긍정적 요인의 점수는 높고 공격성, 미성숙,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 등 부정적 요인의 점수는 낮았다. 이는 일반아가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응적인 집단임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아와 가해·피해아의 관련변인의 점수는 대칭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어 가해·피해아는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가해아와 피해아는 공격성, 미성숙, 정서조절,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 차이가 없으나 친구지지는 가해아가 피해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해아와 피해아는 또래괴롭힘 관여아동이라는 점에서 친구지지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아동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관련변인의 차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성별로

규명하였으며, 또래괴롭힘 유형별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의 경우는 일반아(42.49%), 가해아(20.88%), 가해·피해아(19.41%), 피해아(17.22%)의 순이며, 여아의 경우는 일반아(62.75%), 가해·피해아(17.00%), 피해아(12.96%), 가해아(7.29%)의 순으로 나타나, 더 많은 수의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Olweus, 1993).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는 남아는 가해·피해아, 일반아, 가해아, 피해아의 순으로 여아는 가해·피해아, 일반아, 피해아, 가해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관일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들마다 또래괴롭힘의 개념, 측정방법, 집단구분의 기준 등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아의 경우 피해아보다 가해아의 비율이 많고 여아는 가해아보다 피해아의 비율이 많다는 결과(이해경, 김혜원, 2001; Karatzias 등,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또래괴롭힘 유형별 실태 조사에서는 성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폭력노출, 친구의 비행성향, 친구지지 순이며 모두 환경적 변인으로 나타나 남아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친구의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적일수록, 폭력에 노출될수록 또래괴롭힘에 더욱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관여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상대

적 중요도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이 성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문제가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지민(1998), 한종철과 김인경(2000), Hodges 등(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아의 또래괴롭힘 현상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공격적 성향을 자제시킬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크며, 특히 친구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행성향이 남아와 여아의 또래괴롭힘 관여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이상균, 1999; 조샘이, 2001; Olweus, 1993)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친구의 비행성향을 학습함으로써 또래괴롭힘에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함께 어울리는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연구결과 3에서 폭력노출 수준은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또래괴롭힘 관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의 공통된 특성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노력에서는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 따른 대응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간에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특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적, 환경적 변인 모두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 가장 적응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가해아는 일반아보다 공격성 및 폭력노출 수준이 높고 정서조절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한영

주(1999)는 청소년의 경우 가해아는 피해아나 일반아에 비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가해아는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하여 피해아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아가 피해아보다 친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가해아들은 평균적인 인기도와 그들을 지지해주고 추종하는 소수의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이춘재, 곽금주, 2000; Boulton & Smith, 1994)는 결과와 일치한다. 가해아는 또래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지만 정서조절능력은 부족한 개인들로서, 가해아의 또래괴롭힘 감소차원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피해아는 공격성, 미성숙, 정서조절,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 수준에서는 가해아와 차이가 없으나 친구지지 정도에서는 가해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해아와 피해아는 또래괴롭힘 관여아동이라는 점에서 친구지지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는 가해아와 일반아보다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이해경, 김혜원, 2000; 정정호, 2000; 조샘이, 2001; Hodges 등, 1997)와 일치한다. 피해아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부족한 것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Gottman, 1977). 피해아와 가해·피해아는 일반아에 비해 소외적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집단임을 감안해보면(김희화, 2001; 최은숙, 1999), 피해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대인

관계 기술 및 괴롭힘에 관한 위협이나 갈등을 다루는 기술의 결핍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집단임을 추측할 수 있다(Hodges 등, 1997). 그러므로 피해아의 괴롭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래관계 향상과 대인간 갈등해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한 우정관계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해·피해아는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가장 높고 일반아에 비해 미성숙하는 등 내·외현적 행동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한종철, 김인경, 2000; Perry 등, 1988). 가해·피해아는 일반아에 비해 비행성향을 가진 친구가 많은 반면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에서는 일반아보다 낮아 또래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피해아처럼 미성숙하고 동시에 공격적인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할 때 심리 사회적으로 가장 부정적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종철, 김인경, 2000; Brockenbrough, 2001; Zarkrski & Coie, 199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 유형별 빈도는 남아(일반아>가해아>가해·피해아>피해아)와 여아(일반아>가해·피해아>피해아>가해아)간에 차이가 있다. 둘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또래괴롭힘 관여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폭력노출, 친구의 비행성향, 친구지지 순이며, 여아의 경우 친구지지, 친구의 비행성향, 공격성, 폭력노출의 순이다. 셋째,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간에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요인의 점수는 높고 부정적 요인의 점수는 낮은 가장 적응적인 집단이다. 가해·피해아는 일반아보다 친구지지 수준은 낮은 반면 공격성, 미성숙, 친구의 비행성향 및 폭력노출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한 집단이다. 가해아와 피해아는 공격성, 미성숙, 정서조절, 친구의 비행성향, 폭력노출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가해아가 피해아에 비해 친구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또래괴롭힘의 실태 및 유형집단간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또래괴롭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규명하고 또래괴롭힘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는 유사한 특성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성도 존재함을 밝힌데 의의를 둔다. 게다가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와 예방차원의 접근 및 이후 적응 증진을 위한 중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또래괴롭힘의 예방 및 개입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 또래괴롭힘 유형집단별로 달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해아와 피해아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변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변인의 탐색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동일시점의 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별 집단구분시 또

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의 대상자수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유형별 개인적·환경적 변인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유형별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석진(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 요인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김인경·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245-257.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19-142.
- 문용린(1998). 초등학교에서의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장교육탐구 보고*, 98(1), 서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구소.
- 박미연(2000). 초등학교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 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 63-89.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희옥(2001). 또래와의 갈등대처양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 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2(3), 49-61.
- 안재진·이경남(2002).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0(2), 9-20.
- 오경자·이혜련·하은혜·홍강의(1996). 한국판 CBCL의 문제행동중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서울 의대 정신의학*, 20(1), 45-52.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행동문제, 내 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65-80.
- 이해경·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95-113.
- 이해경·김혜원(2001).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 변인들 :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천(2000).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과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정호(2000).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민(1998). 학교 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샘이(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집단별 관련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한영주(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종철·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03-114.
-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o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ernstein, J. Y., & Watson, M. W.(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4), 408-438.
- Boulton, M. J., & Smith, P. K.(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 Brockenbrough, K. K.(2001).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preven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21-530.
-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 (1995).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 (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295-311.
- Espelage, D. L., Bosworth, K., & Simon, T. R.(2000). Examining the social context of bullying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326-333.
- Gottman, J. M.(1977). Toward a definition of social isolation in childrens. *Child Development*, 48, 513-517.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1992). Bullying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 45-61.
- Kris, B., Dorothy, L. E., & Thomas, R. S.(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41-362.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Ladd, G. W., & Burgess, K. B.(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 1579-1601.
- Morgan, S. P., & Teachman, J. D.(1988). Logistic regression : description, examples, and compari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29-936.
- Natvig, G. K., Albrektso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0(5), 561-575.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 Blacwell.
- Olweus, D.(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 Facts and intervention. *Eur.j.Psychol. Educ.* XII (4) : 495-51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 & Slee, P. T.(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 (2), 97-107.
-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Zarkrski, A. L., & Coie, J. D.(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

2003년 12월 31일 투고 : 2004년 3월 12일 채택